

‘국제 맑은 공기의 날’, 대기오염 타깃 삼아

(09.07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자는 국제 차원의 협력강화를 위해 UN이 지정한 날로 9월 7일은 그 첫 번째 기념일이다.

핵심 메시지는 대기오염이 지금으로선 건강에 대한 가장 큰 환경적 위협이긴 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바꿀 수 있는 해법과 기술이 있다.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개인부터 민간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10명중 9명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심장병, 뇌졸중, 폐암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매년 7백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또한 경제, 식량 안보 및 환경을 위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세계는 대기오염에 더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WMO는 지난 8월4-6일간 코로나19의 기후·기상·환경적 요인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관계 전문가 그룹과 공동 개최했는데, 최종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사람이 미세먼지 형태의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코로나19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문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취약함을 보이는 패턴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때 앞서 언급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기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 확산율에서 대기 질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WMO는 전지구대기감시(Global Atmosphere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블랙카본¹⁾, 대류권 오존, 대기 먼지 등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가용성과 관측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증거 기반의 환경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WMO 회원국은 예측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극심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일을 미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WMO는 또한 전지구 차원의 연구를 주도하고 대기 질과 기후 간의 연관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하며 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과학 기반 도구를 개발한다.

대기오염 방지는 WMO-WHO 공동사무소의 여러 우선 순위목표들 중 하나이며, WMO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2030년까지 2/3까지 줄이기로 한 전 세계 공약에 서명했다. 2019년 열린 WMO 총회에서는 대기 질을 중점 고려한 통합형 도시 및 보건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을 개선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WMO는 전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 질 예·정보 시스템의 제공자 및 사용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전지구 대기 질 예·정보 시스템(GAFIS)의 구축 사업을 발족시켰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기 질에 관심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규모의 대기 질 예측 및 분석 자료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석탄, 석유, 나무 등과 같이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그을음을 가리킨다. 보통 자동차 매연이나 아궁이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에 포함되어 있다.